

지구환경을 지키자

현재 지구환경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다. 금년들어 그 인식은 세계적으로 고조되어가고 있지만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혀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곤란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는 년간기획「지구환경을 지키자」는 특집시리즈에서 미국·유럽 시민단체의 활발한 최신동향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註)

3

배가스 대책, 국민총력집결

-오염자 부담

인구밀도가 1km²당 350명, 차량밀도는 128대로 모두 세계1위이고 국토의 1/4이 해발이하인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미래에는 이수치가 어떤의미를 갖는가? 를 생각해 보자.

암스텔담의 환경보호단체 「미리에우. 디펜스(환경방위)」본부 기관지의 편집장 슈단. 델메아씨는 한마디로 “환경파괴”라고 단언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국내에 500만대의 차량은 10년후에는 800만대로 배가스는 증가하게되고, 현재 산림의 8할은 고사하게 된다.

또, 지구 온난화가 사실화되면 해면이 상승하여 네덜란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국토의 수몰이 시작된다. 이런 사태를 맞아 네덜란드 정부는 금년5월 「국가환경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선택하느냐? 아니면 잃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258페이지 분

량의 이계획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을 수록하고 있다.

-NOx 90% 삭감 목표-

이 환경정책 계획에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탄산가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을 최고 90%로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자금은 「정부만으로는 환경오염을 해결할수 없다.」는 골자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세웠다.



▲ 그림같이 아름다워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암스텔담의 운하.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준면의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처해있다.

네덜란드는 현재에도 약75억킬터를 환경대책비로 지출한다. 이비용은 GNP의1%에 가깝다. 새로운 환경정책계획에는 이비용을 최저 GNP의2%, 최고 3.5%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오염자부담원칙은 소비자에게도 물론 해당된다. 가솔린 세금의 상승. 마이카 통근자의 통근비세액공제 철폐등...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이유중 하나는 「녹색의 영웅」이라 불리는 루베루스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수상은 87년에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국립환경연구소의 보고를 토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여왕. 낙관론에 경고—

또한, 베아트릭스 여왕의 힘도 컸다.

작년, 국회에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너무 비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토의하였지만 여왕은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낙관론을 일축하였다.

그리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가장 큰 지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강한 위기의식이였다. 게이스, 스테맨 환경보호청 차장은 최근 실시한 암스텔담 자유대학의 여론조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이 현재보다 43킬터를 더 지불하여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유럽의 소국 네덜란드는 지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없을 정도의 강한 결의로 국민의 총력을 모아서 환경파괴에 맞서고 있다.

4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성당앞을 기묘한 행렬이 지나간다. 「로와르 강은 살아나고 있다」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물이 가득 든 유리병 2개를 가마위에 올리고 걸어가는 데모대 행진이었다. 한병에는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다른 하나에는 녹색으로 탁해진물이 들어 있다.

길이 1,000km로 프랑스에서 가장 길고, 수많은 유명한 성을 끼고흐르는 로와르강에서, 하천정비를 위해 수원지 근처 루푸이등 4개의 댐건설계획

이 진행되고 있다.

이계획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수질을 저하시킨다」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크게 반대하였다.

최근,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세력이 확장, 3월 지방의회선거에서는 댐건설을 반대하는 녹색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부득이 정부도 공사착수를 늦추고 있는 중이다. 4월에는 수원지에서 10,000명의 항의집회가 열렸고, 8월하순에는 댐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물을 지키는 행진」이 루푸이에서 낭트항까지 행진하였다.

이 행진은 걸으면서 강물을 채취하여 수원지의 물과 비교하여 오염도의 진행을 측정했다. 올레앙 시청의 대광장에서 일행을 환영한 것은 젊은 녹색당의원인 시지윈 부류노. 디바시(27)와 보이스카우트였다.

사회당의 새시장도 추경예산의 10%를 환경보호에 충원하는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

—녹색당의 급성장—

출발점의 행진자중에 루푸이시의 시회의원 말당. 알노씨(29)가 포함돼 있었다. 그의 본래직업은 스포츠지도자. 그는 “연도의 주민들이 열렬히 성원하였다”고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 오염되고 있는 로와르강물을 가마에 올려놓고 행진하면서 환경보전을 호소하는 환경보호자들.

루푸이시에서 녹색당은 22%의 득표율로 35의석 중 3위석을 처음으로 획득하였다.

금년들어 녹색당은 급성장을 이뤄, 3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전 세력의 2.6배인 1,400의석(득표율 8%)을 차지하였다. 여파를 몰아 6월 구주의회 선거(비례대표제)에서 보수연합, 사회당, 극우 국민전선 다음으로 4위를 차지, 9명의 의원(이전엔 한명도 없었음)을 스트라스불의 구주의회로 보냈다. 이로 인해 녹색당 의원연합은 39명(이전엔 20명)을 구성할 수 있게되었다.

녹색당 지지층에 대해 동당의 대변인 프랑소와 벨드씨는 ① 청년층과 여성중심 ② 도시형 주민이 많다. ③ 기성정당 불신화등으로 분석하였다. 또,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① 타당보다 교육수준이

높다. ② 월급장이, 특히 공무원이 많다. ③ 국정 레벨에서라면 좌익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환경보호운동 담당자는 소비사회에 이의를 나타내는 유토피아적인 장발, 히피형의 젊은이가 중심이 되었다.

이에 비해 현재의 활동가는 교사출신 및 과학적 소양이 있는 연구자·기사가 많고, 지구오염을 우려하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서구각국의 정치적 배경이 어느정도 같은 녹색당이라 하더라도 <정통환경보호파> <사민당 또는 신좌익파의 협조추진파>와는 노선이 다르다. 그러나 모든 유럽제국들은 보통사람들이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회 고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현황, 공지사항, 제언 그리고 시·수필 등을 200자원 고지에 적어 보내주시면 본지에 선별·게재하고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단,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보내실곳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1221호
(사)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T E L : 753-7640, 7669